

'영원한 패자 없다' 100패 딛고 WS 오른 애리조나·텍사스



▲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2023 월드 시리즈 홍보 이미지. 사진=MLB.com

올해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팀은 애리조나와 텍사스 가운데 한 팀이다.

지난 26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포스트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애리조나와 텍사스가 2023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상 전무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 가운데 정규리그 승수가 가장 적었던 애리조나는 NL 와일드카드 3위(6번 시드)로 가을야구에 참가했지만 돌풍은 가장 거셴다.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NL 중부지구 우승팀 밀워키를 밀어냈고, 디비전시리즈에서는 NL 승률 2위의 '100승팀' LA 다저스를 완파하고 챔피언십시리즈에 올랐다. 그리고 챔피언십시리즈에서는 지난 시즌 NL 챔피언 필라델피아를 꺾었다. 애리조나는 2승 3패로 몰렸다가 내리 2승을 따내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월드시리즈 티켓을 차지한 텍사스도 '언더독'의 맹렬한 기세를 떨쳤다. AL 와일드카드 2위(5번 시드)로 출발한 텍사스는 '99승' 탭파베이 레이스를 제친 뒤 디비전시리즈에서 AL 최고승률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눌렀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휴스턴을 무너뜨렸다. 4승 모두 휴스턴 홈 마이너리그 파크에서 따낸 텍사스는 포스트시즌 원정 8연승으로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을 세웠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스포츠에서 영원한 패자는 없다'는 격언을 입증했다.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시즌 100패를 넘어선 약체였다. 당시 애리조나는 NL 서부지구 꼴찌였고, 텍사스는 가까스로 60승을 챙겼다. MLB.com에 따르면, 2년 전 100패를 당한 팀들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것은 MLB의 유구한 역사상 첫 사례다.

텍사스는 1961년 창단 이래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꿈꾼다. 이전 두 차례 월드시리즈에서는 모두 패퇴했다. 2010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01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꺾인 텍사스는 12년 만에 다시 월드시리즈 우승 기회를 잡았다. 애리조나는 2001년 이후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당시 팀 마무리투수가 김병현이었다. 그해 애리조나는 거함 뉴욕 양키스를 4승3패로 꺾고 월드시리즈 반지를 썼다.

코다 "혈전증 극복 힘들었지만 우승이 목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8승(메이저 1승)을 거둔 벨리 코다(25, 미국)는 현재 여자골프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미국 선수이다.

코다는 2021년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4승을 거뒀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커리어를 달성했다.

하지만 코다는 지난해 골프 생명 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2월 혈전증 진단을 받고 4달가량 필드를 떠난 것이다. 코다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재활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는 마침내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2연패를 달성한 뒤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지난 20일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코다는 "혈전증은 단순 부상이 아니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골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4개월 동안 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도 불확실했고 복귀했을 때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또 "2022년에 쉬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웠고 복귀 후에 기복 있는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기다리던 우승을 해서 정말 기뻐했다"고 회상했다.

코다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자 선수역



▲ 지난 13일 플로리다주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2연패를 달성한 벨리 코다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뉴스

대 최고 금액으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다. 연간 500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허리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초반 7개 대회에서는 6위 안에만 6차례나 들며 세계랭킹 1위를 탈환했지만 허리 부상 때문에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컷 탈락한 뒤 한 달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해야 했다.

1위였던 세계랭킹은 어느새 6위까지 떨어졌지만, 코다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 대회 우승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랜드 오픈

정약국

Jung Pharmacy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독감, RSV, 코비드
예방 접종 시작!

처방 없이 예약 없이
워크인 환영

한분 한분 친절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건강을 생각하는 약국,
정약국입니다.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